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 양*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주 일 예 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김은희

김원재목사

다같이

설교자

주 곁에 설 때까지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4:32-37

광야를 지나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의 참된 터는 (찬 600)

기도인도

봉 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 도*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부터 이정현 자매가 샤마임찬양대와 2부예배 반주를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3. 8/30(주일)부터 - 9/2(수)까지 자녀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차유미 전도사)
4.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5.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영상기도회와 현장기도회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6.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현장예배에서 직접하시거나 혹은 우편으로 혹은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이 현재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을 슬기롭게

사람이 상황에 따라 느끼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재미있고 즐겁거나 집중되는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고, 즐겁지 않고 힘든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동일한 시간대도 나이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시간이 빨리가는듯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처럼 시간이 잘 안가는 시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요즘, 몇 년은 지난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그 만큼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것이,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5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마치 1년은 지난듯한 느낌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게 보내고 있고, 행복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또한 지나가리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사람을 만나기 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이때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더 중요히 여겼던 생활 태도로 인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는 고작 주일예배 한 시간뿐이었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주님과 의 시간을 늘이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큐티노트에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늘이는 것이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준 걱정과 근심보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보내며,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6,882